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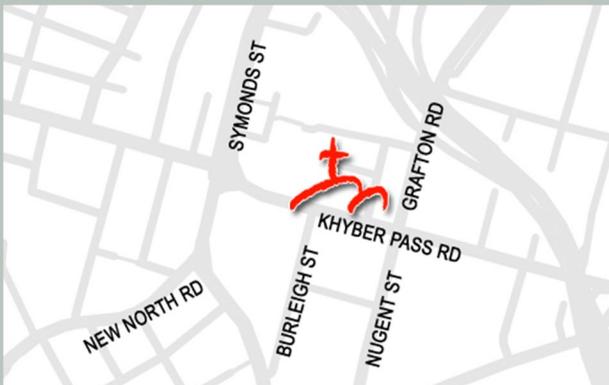
1.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삼상 7:12)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 12월 정기 당회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3시 10분).
3. 2019년 송구 영신 예배를 31일(화) 밤 11시에 본당에서 성찬 예식과 함께 드립니다. (성찬 위원/ 시무 장로)
4. 피택 안수 집사, 권사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시 45분, 청소년부실)
5.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새해 첫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신임원들은 빠진 회원들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2019년 성탄 감사 예배와 축하 잔치가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 교회의 여러 분야를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제출함은 본당 입구에 있습니다.
분야/ 예배 준비 및 정리, 교사, 찬양단, 주차 안내, 음향, PPT, 주방 봉사 등
8. 내년도 헌금 영수증 발행을 위한 성도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admin@calvary.org.nz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월 교회 사역 일정]

3일(매주 금): 저녁 기도회
5일(주일): 신년 주일
6-8일(월-수): 교역자 수련회

12일(주일): 제직 주일
26일(주일): 권사 기도회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12/29
21권 52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20분 2부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역대상 16:28-29 인도자
■ 찬송	28장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59장 다같이
대표기도	정관영 장로
성경봉독	마태복음 25:14-30 인도자
찬양대찬양	여호와여 주의 하신일이 내무십자가찬양단
설교	그들과결산할새 이태한 목사
찬송	301장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445장 다같이
■ 축도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1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1일 - 15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금 주 기도 오혜신 자매
다음 주 일 권우석 형제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1월 기도 순서]

1월 5일 (주일) / 김병진 목사
1월 8일 (수) / 가정 예배
1월 12일 (주일) / 김병진 목사
1월 15일 (수) / 가정 예배

[1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김철재, 정옥자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이번 주는 아프리카 차드 양승훈 선교사 소식입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고, 깊이 새겨 보면 주님의 손길이 스치지 않은 삶이 없었던 한 해였기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말로 2019년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차드 선교를 품어 주신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찾은 ‘모고’와 놀라운 축복/ 3년여 전 ‘모고’ 지역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 이후 은자메나 EEMT 5교회에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5교회에서 정부의 허락을 받아 무슬림 지역인 모고에서 이번 11월 28일에서 12월 1일까지 약 30여 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여 예수 영화 상영과 가가호호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 번져있는 기쁨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충만한 기쁨이 얼굴에 묻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전도 대회 마지막 날 주일 예배에 그들 중 7명의 형제, 자매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을 옮겼을 터인데, 그들의 신앙이 굳게 서고 어떤 핍박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믿고자 고백한 이들과,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믿겠다고 표시할 수 없었던 복음의 씨앗이 심령에 떨어진 그들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모고 교회와 사역자 “무싸” 그리고 그의 동역자 “라마단”이 복음의 열정을 지속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한 믿기로 작정한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이러한 본질적인 일에 현지 교회들이 모두 참여하는 은혜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처음 가 본 놀이터 나들이/ 성탄 때에 CTS 지원을 통해 아픈 아이나 결석한 아이들을 제외하고 약 67여 명의 아이들과 7명의 현지 교사와 선교사 5명, MK 3명이 함께 차드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처음 이런 곳을 방문한 아이들 눈에는 신기함과 기쁨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성탄을 맞아 고난의 자리에 오셨지만 세상에 큰 기쁨을 주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세상의 큰 기쁨이 될 아이들의 웃음이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난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자라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기도 제목

- 1) 모고 마을 전도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떨어진 복음이 생명으로 맺혀질 수 있도록
- 2) 돌보는 70여 명의 아이들이 행복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뉴질랜드라는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이 아름다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제 삶 속에 일하셨습니다. 또한 언제나 제가 상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할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요?

14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워킹 맘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시작된 뉴질랜드에서의 지난 9개월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갈망하던 제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는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뉴질랜드에 오니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한 주 한 주 그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 말고는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지난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듯 느껴집니다.

갈보리교회에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부터 교회 어르신들까지 모두 함께 한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는 정말 정겹고 따듯한 성탄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없이 낯설 수도 있는 이곳에서 가족같이 따듯한 갈보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따듯하게 안아 주시고, 부족한 모습도 늘 품어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사랑에 아버지 안에 한 가족 된 마음을 느낍니다. 이태한 담임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성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형님의 사랑을, 그리고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참 값을 수 없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닌 줄 알기에 좋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0년이 어느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세 아들의 엄마로, 목사의 사모로, 그것도 뉴질랜드라는 놀라운 땅에서 2020년을 맞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지만 합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식구들과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교회를 향한 새로운 계획들을 한껏 기대하게 됩니다. 숨 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0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Happy New Year!

김여진 사모

1. 진리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2.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3.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마태복음 25: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